

비온드 스테이지 '수제천' 재해석한 작곡가 최우정

“콩쿠르 우승? 서양 고전 대리점 벗어나야 진짜 K클래식”

K클래식 시대라고들 한다. 해외 콩쿠르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클래식 연주자가 많아졌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서구 근현대의 유산을 재생산하고 있을 뿐, 한국인의 고유한 관점을 제시하는 창조적 해석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K클래식'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이유다.

지난 9월 세종 예술의전당에 이어 지난달 30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ECO&ECHO 콘서트'는 주목할 만한 기획이었다. 클래식 콘서트에선 드물게 환경을 주제 삼았는데, 최우정 서울대 작곡과 교수에게 위촉한 '수제천 리사운즈(resounds)'가 시그니처였다. 멘델스존의 '핑갈의 동굴' 서곡, 본 윌리엄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달새의 비상',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까지... 자연에 영감을 받은 클래식 명곡 열전의 시작과 끝을 최우정의 신곡이 담당할 것이다. 하늘과 같이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뜻을 가진 대표적인 국악 '수제천(壽濟天)'을 재해석해 서양 거장들이 표현한 자연을 동양적 자연관으로 살포시 감싼 셈이다.

“전통음악 자체가 자연과 맞닿아 있잖아요. 특히 한국음악은 궁중음악조차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야외에서 연주했으니까요. 옛 음악가들에게는 소리를 내기 전에 자연의 소리를 먼저 듣는 습관이 늘 있었던 거죠. 수제천은 어려서부터 워낙 좋아했고, 전통음악을 지금의 환경에서 재창조하는 요즘 제작업들의 맥락이기도 합니다.”

공연은 특이하게 미디어아트를 배경 삼아 진행됐다. 천지창조로부터 마냥 푸르던 지구가 공장 굴뚝으로 뒤덮이고 오늘의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에 이르기까지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영상이 마치 영화음악 콘서트 같았다. 태고의 소리인 듯 단순한 모티프가 반복되는 '수제천 리사운즈' 1악장과 멘델스존의 '핑갈의 동굴'이 오보에 솔로로 마치 하나의 곡처럼 이어지고, 본 윌리엄스의 '중달새의 노래'가 지구를 온통 꽃으로 뒤덮더니, 베토벤 '전원'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위기가 '수제천 리사운즈' 2악장으로 메타리치며 경고와 충격으로 끝난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한 게 아니라 폭력적이기도 하잖아요. 베토벤도 '전원'에 그런 생각을 담았어요. 5악장이 베이스들의 위협적인 연주로 끝나는 데, 그걸 이어서 지구는 이제 끝났다는 암시와 상징을 주는 게 저의 2악장이죠. '전원'의 폭풍우 치는 분위기에 대한 저의 코멘트랄까요. 베토벤이 듣는



지난달 30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수제천 리사운즈'를 선보인 최우정 서울대 교수.

[사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다면? 아마 칭찬할 것 같아요. 자기 맘 알아줬다고.(웃음)”

최우정은 최근 현악 앙상블과의 피리 협주곡 '환'을 세계 초연하는 등, 한국적인 것을 모티브 삼은 활발한 전통 재창조 작업들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런데 국악기를 쓰지도 않고 개념만 가져온 '수제천 리사운즈'는 한층 새로운 접근법이다. “어려서부터 들던 수제천에 대한 기억을 내 몸을 통해 다시 울리게 한 작업이죠. 우리가 너무 수입만 하잖아요. 175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200년간 백인 남자들이 만든 음악에 너무 치우쳐 있죠. 클래식 쪽에서도 세계와 공유할 만한 걸 우리가 만들 때가 됐는데 아직도 대리점 같아요. 어느 순간 나도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됐고, 전통음악을 좋아했던 기억을 뭔가 새로운 나의 음악의 출발점으로 삼게 됐죠.”

'ECO&ECHO 콘서트'는 환경음악회라 더욱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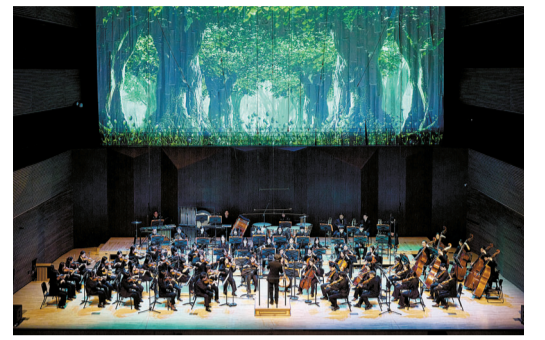
국립심포니 'ECO&ECHO 콘서트'

장수 기원하는 국악 '수제천' 재해석 베토벤 교향곡 '전원' 등과 어우러져 서양 거장, 동양적 사상으로 감싼 셈 “몸으로 먼저 반응 와야 좋은 음악”

별했다. 특정 클래식 작곡가의 레퍼토리와 스타 협연자를 내세우는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와 '예술을 위한 예술'과는 결이 다른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이 낯설기도 하다. “국립 단체는 더욱더 대리점이 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원조들이 보기에

잘한다 정도는 이제 격에 맞지 않아요. 국립심포니가 베토벤이나 말러를 하더라도 기준에 없었던 독특한 해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상품이 되어야 서구 근현대의 유산과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한국문화를 밖에 가져나갈 때 아직도 우리 전통이 훌륭하다 보여주고 있는데, 개발도상국 시절에 하던 일이에요. 뭔가 세계의 지식인들이 주고받는 전 지구적인 이슈를 우리 국립 단체들이 다루면 좋겠어요.”

최우정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 더 익숙한 이름이다. 오페라 '1945', 뮤지컬 '광주', 음악극 '적로', 합창음악극 '마지막 눈사람' 등 온갖 극음악 프로젝트에서 전방위로 활약해왔다. 내내에도 국립오페라단 '화전기', 국립극장과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심정' 등 대작을 도맡고, 오케스트라 디오 리지날·지휘자 아드리엘 김과 함께 '얼터너티브 클래식 뮤지컬'을 제안하는 공연도 기획 중이다.



공연은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미디어아트를 배경으로 진행됐다. [사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빈 음대 교수들이 그러더군요. 자기 나라 애들도 면접 볼 때 현대음악 작곡가로 영화음악가 한스 짐머나 맥스 리히터, 루드비히 에이나우디 같은 내로 클래식 작곡가를 뽑는다고. 그런 음악이 참 좋아요. 우리 삶의 리듬에도 맞고 소리도 새롭고 기술도 잘 사용하죠. 그게 21세기 현대음악이지, 20세기 그대로 다 죽은 사람들 따라하는 건 진짜 현대음악이 아니에요. 몸으로 먼저 반응이 와야지, 이해를 해야 하는 음악이면 접근성이 떨어지죠. 요즘 전공자들이 작곡한 걸 들어보면 도저히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삶 속에 녹아드는 음악이 필요 합니다. '올드보이'의 이지수, '오징어 게임'의 정재일 같은 사람들이 K작곡가 아닐까요.”

K작곡가가 만든 기악곡이 K연주자들처럼 세계 무대를 중흥무진할 날도 멀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바르톡 국제 작곡 콩쿠르에서 한예중 재학생인 18세 작곡가 이하느리와 2022년 제네바 콩쿠르 작곡 부문 우승자 김진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일단 더 많이 작곡해야 돼요. 재능 있는 작곡가를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국공립 단체가 발굴을 잘 안 하거든요. 문화 정책이 자주 바뀌니까 장기적인 맥락이나 미학적 방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이 없죠. 정책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클래식의 역사적 계보를 잇는 실험적인 현대음악 이 과연 우리 몫일까. 대중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동시대적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는 것. 진짜 'K클래식' 시대를 위한 조건이다.

/유주현 기자 yjoo@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여성국극 '전설이 된 그녀들' 니마이 존재감 없어 아쉬움

<왕자형 주역>

4일 등재된 장담그기 문화처럼, 5일 국립국악원에서 공연된 노가쿠(能楽) '망한가(望彼馬)'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국립국악원과 일본 아트리에 카슈가 공동 제작했고, 11·12일 도쿄에서도 공연된다고 한다.

1993년 초연된 이 현대 노가쿠의 내용이 놀랍다. 일제 강점기 결혼 직후 일본 탄광으로 끌려간 강제 징용공의 아내가 먼 훗날 한 일본인 승려에게 죽은 남편의 편지를 전달 받는 슬픈 이야기에 백제의 망부가 '정읍사'가 녹아있다. 일본 전통 예능이 일본의 과거사를 반성하는 레퍼토리를 만들어 화해의 손길을 내민 셈이다.

이번 공연엔 재일교포 국악인 민영치가 음악감독으로 참여해 국악기와 판소리·정가, 전통춤까지 더했다. 노가쿠는 철저히 양식화된 움직임과 노래, 반주로 유명하지만, 우리 국악의 여러 요소가 끼어들어도 근사하게 어우러지는 지점이 의외로 풍부했다.



더 큰 감동은 여백이 많은 시와 같은 스토리텔링이었다. 홀로 늙은 노파가 죽은 남편의 이름을 듣고 “그런 이름 따위 있었다”는 노가쿠 창법 특유의 짙은 목소리가 지극히 슬프다. “이 고통을 잊지 마시

600년 전통 일본 '노가쿠' 서울 공연 과거사 반성 시대정신 담겨 울림 커

오.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가사도 울림이 세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 우자와 히사(75·사진1)는 일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대를 잇고 있고, 그의 딸 우자와 히카루도 참여했다. 70대 주인공과 고�령의 연출가가 만드는 단출한 무대였지만, 대대로 600년을 이어온 전통 예능이 시대정신까지 반영해 외국인의 가슴을 울린다는 게 놀라웠다.

3일 국가유산진흥원이 민속극장 풍류에 올린 여성국극 특별공연 '전설이 된 그녀들'도 흥미로웠다. 드라마 '정년이' 열풍 덕에 7일 두 차례 공연이 추가되는 등 인기다. 45년간 보여준 당대의 대표작



'선화공주' 하이라이트는 색다른 매력이었다. 총천연색 의상이 화려함의 극치였고, '가다끼'(악역) 석품 역 이미지(79) 선생 등 2세대 배우들의 코믹한 연기가 웃음을 줬다.

그런데 여성국극의 시그니처 '니마이'(왕자형 주역)의 존재감이 간데 없었다. 흥성덕 여성국극예술협회 이사장의 딸인 국립장극단원 김금미, 그의 딸 소리꾼 박지현이 서동공 선화공주를 맡아 모녀시간에 커플 연기(사진2)를 했다. 창극에서 엄마 역할을 도맡는 배우에게 왕자 포스가 나올 리 없다. 국극이 인기를 끌었던 핵심을 포기한 채 단순한 70년 전 레퍼토리 재연이 무슨 의미일까.

공연 전 대답에서 흥성덕 이사장은 여성국극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호소했다. 그래야 지원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 국극이 예상 외로 합하기는 해도,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할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600년을 이어온 노가쿠가 단순히 무형유산이라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망한가'처럼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이어졌기에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 아닐까. 여성국극의 부활을 꿈꾼다면, 흥망성쇠의 이유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유주현 기자 yjoo@joongang.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세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